

〈일반논문〉

1920년대 불교계의 사회사업의 동향과 사회문제 인식

예 지 숙*

〈목차〉

- I. 들어가며
- II. 한국불교 사회사업의 배경
- III. 한국불교 사회사업의 동향과 특징
- IV. 한국불교의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
- V.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20년대를 중심으로 근대 한국 불교계의 사회사업의 동향과 인식을 규명하는데 있다. 불교 사회사업에 대한 그간의 이해는 각 사찰의 활동을 발굴하여 일제시기에 불교가 사회사업을 수행했음을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이 글은 이러한 이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불교 사회사업 실시에 영향을 준 요인들과 불교계의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학승 김태흡의 논저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사회사업의 수용 논리를 살펴보았다.

문명개화와 개혁을 위해 사회화와 대중화를 표방한 한국 불교는 1920년대에 민족운동, 사회운동의 부상과 일본 제국과 일본불교, 기독교의 사회사업의 실시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사업을 주장하였다. 불교계는 종교가 속세간의 경제적인 곤란함, 빈곤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

* 동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독교와 일본불교가 교단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한국불교는 주로 개별 사찰의 사업으로 진행된 한계가 있다. 불교가 속세간의 일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리 차원에서 돌파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학승 김태흡은 일본 도요대학(東洋大學)에서 사회사업을 주제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 그는 사회사업을 통하여 근대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는 종교의 본질인 구원이 저 피안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상향을 구현하는 것이라 하여 한국불교의 사회참여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사회사업의 이론적 기반인 사회연대론을 불교의 교리 내에서 수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불교 사회화와 대중화의 하나의 길로서 사회사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 주제어

불교 사회사업, 김태흡, 불교 대중화, 불교 사회화

I. 들어가며

빈자를 구제하는 것은 종교 본연의 활동이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근대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사업은 종래의 자선이나 구제와 성격을 달리한다.¹⁾ 더불어 불교의 사회사업은 한국불교가 근대 종교로 거

1)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한 것은 1920년대이다. 빈곤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종래의 구제사업과 자선사업은 사회사업으로 바뀌었고 전후에는 사회국가, 복지국가로 전환되었다. 1920년대에 조선인들은 온갖 공익사업 즉 교육사업, 공공시설 건설사업, 자선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회사업이라 하였다. 이에 반하여 조선총독부는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사회사업이라 하였는데, 이는 종래 구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사회사업의 의미는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선총독부의 것에 가깝다.

듣내기 위해 시도한 여러 가지 중의 하나였다.²⁾ 사회사업은 비단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천주교 등 제 종교가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 중 하나였다. 한국불교와 가까워서 영향을 주고받은 일본불교도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근대적 종교로 전환하였다.³⁾

1920년대에는 사회사업이 일종의 대세로 자선을 대신하였고 조선총독부에서 민족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사업을 주장하였다.⁴⁾ 제 종교들은 포스트 3.1운동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려 하였고 조선사회와 접촉면을 넓히려 하였다. 조선에 진출한 일본 불교의 사회사업과 기독교계의 사회복음주의에 입각한 사회사업이 이에 해당한다.⁵⁾

한국불교도 일제시기에 다양한 빈민구제 활동을 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구제사업이 한국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를 표방하는 움직임 속

2) 한국 근대 불교사의 주요 논점이 과거에는 민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지배 대 저항, 친일 대 반일이라는 구도 하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근대 종교로의 불교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와 종교,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있다.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의 것이 있다. 김용태, 「한국 근대불교의 대중화 모색과 정치적 세속화」, 『불교연구』 35, 2011 ; 「근대 한일불교의 정교분리 문제와 종교성 인식」, 『불교학연구』 29, 2011 ;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국불교학』 50, 2008 ; 김기중, 「김태흡의 대중불교론과 그 전개」, 『한국선학』 26, 2010.

3) 제점숙, 「식민지 조선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동향 - 신슈오타니파(眞宗大谷派)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6, 2010.

4)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에 대해서는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1936)」,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참고.

5)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을 바라보는 주요한 시각은 총독부와 재조일본인 사회를 하나의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파악하고 조선총독부와 일본불교와의 유착을 밝히는 데 있다. 그러나 재조일본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둘의 의도가 반드시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불교의 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조일본인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Jun Uchida, *Brokers of Empire ;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Harvard University on East Asian, 2014 참고.

에서 추구되었다는 점이다.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볼 때 일제시기에는 “산간에서 도시로, 승려에서 대중으로”라며 대중화가 불교의 중심 과제로서 대두되었다. 불교대중화 운동으로 포교당 설립, 잡지 발간, 역경 출판 등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활동은 근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국 근대 불교의 특징이다.⁶⁾ 본고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한국 불교의 사회사업을 ‘불교와 근대사회와의 관계 모색’이라는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사업이 부상한 전반적 분위기에 한국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불교 사회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일본 불교 제 종파의 활동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⁷⁾ 한국 불교 측의 활동에 대해서는 잡지 『불교』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국 개별 사찰과 각종 단체들의 구체 활동을 개괄한 연구가 도움이 된다.⁸⁾ 그러나 근대 한국 불교가 사회사업의 무풍지대가 아니었음을 밝히는 것에 논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단편적인 활동상을 수집한 데 그친 면이 있어 다소 아쉽다. 초기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는 한국 불교계가 사회사업에 뛰어든 배경과 논리를 밝혀 논의를 진전시켜 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불교 사회사업의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또 본고는 사회사업에 대한 많은 글을 남긴 승려 김태흡(金泰洽)에 주목할 것이다. 그는 불교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 대표적인 학승

6) 불교대중화에 대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57~58쪽 참고.

7) 제점숙, 「식민지 조선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동향 - 신슈오타니파(眞宗大谷派)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 윤정옥,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會事業政策』, 大阪經濟科大學 出版部, 1996.

8) 이혜숙, 「일제강점기 불교계 사회사업의 개괄」, 『불교평론』 51, 2012; 일제시기 한국불교 사회사업에 대하여 다룬 거의 유일한 연구로 이 글의 필자는 근대불교 사회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으로 불교계의 학승이며 불교계에서 대표적 기관인 교무원의 중앙포교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불교잡지에 많은 글을 기고하고 설법을 하고 또 라디오에 나가서 포교활동도 하였다. 한편 그의 대중불교론의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어 본고의 바탕이 된다.⁹⁾ 본고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주로 김태흡의 사회사업에 관한 저술을 주로 분석하여 한국 불교의 사회문제와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에 접근할 것이다.

II. 한국불교 사회사업의 배경

1. 조선총독부의 사회사업 실시

1920년대에는 서구제국주의 국가와 일본을 막론하고 노동대중의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빈곤은 인간의 역사만큼 오랜 것이지만 이 시기에는 빈곤에 대하여 자본주의 발전의 부산물로 사회구조에 의해 배태된 사회문제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빈곤은 근면과 검약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경제적 몰락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를 국가나 사회에 의하여 즉 공공에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사회정책, 사회사업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조선총독부가 사회사업을 실시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3.1운동으로 부상한 민족운동의 열기였다.¹⁰⁾ 조선총독부는 사회사업을 도입하면서 ‘시

9) 김기종, 앞의 글.

세의 변천에 부응한다.’는 말을 빼먹지 않았는데,¹¹⁾ 이는 민족운동의 부상이라는 상황을 반영한 언급이었다. 본질적으로 사회사업은 노동대중의 계급투쟁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 강했다.¹²⁾ 대중의 급격한 진출은 서구 자본주의국가는 물론 1918년 코메(米)소동을 겪은 일본정부가 사회사업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원인이었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통치정책의 전환 속에서 사회사업이 실시된 것도 같은 맥락에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성난 조선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종래의 구제사업을 확대하고 본국에서 막 출범한 사회사업을 도입하였다.¹³⁾

조선총독부는 사회사업을 실시하면서 일선(日鮮)의 종교단체를 동원하고자 하였다.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은 기독교의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거론하면서 일선의 종교인들에게 사회사업 시설을 독려하였다.

종래 외국 선교사가 각지에 영주하여 종교를 선포하는 일방으로 의료, 육영, 구제를 경영했던 것에 반하여 일선(日鮮)의 종교가로 차종의 사업에 제휴

10) 조선총독부는 1920년 7월 내무국 내에 사회과를 설치하여 사회사업과 사회교화 그리고 종래의 구제사업을 관장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회사업이라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1920년대부터 사회사업은 일본과 조선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실시되었다. 대만에서는 대만의회설치운동 등과 같은 항일운동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사회사업은 이러한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응물이었다.

11) 조선총독부, 『시정25년사』, 514쪽.

12) 김태흡, 「종교와 사회사업의 연구」(2장 1절 사회사업의 의미), 『불교』 33호, 1927.3, 12쪽.

13) 사회사업은 일본에서 1918년 코메(米)소동 이후 전격 도입된 정책이다. 본국에서 정책으로 사회사업이 실시되고 담당 부서인 사회국이 만들어지면서 사회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였다. 그간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기시하였으나 1920년대부터 중요한 정책 용어로 쓰였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7월 27일 내무국 사회과를 신설하였는데, 업무는 '진흥 및 자선, 사회사업, 지방개량(교화), 향교 재산 관리, 수리조합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 자 극히 적음은 유감이다. 근시 내선인(內鮮人) 종교가 간에 사회사업을 기도하는 자가 점차 흥기함은 흔히(欣喜)한 일이다.¹⁴⁾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와 조선총독은 기독교의 예를 들면서 내선인 종교인에게 사회사업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조일본인 사회사업가들은 조선의 사회사업이 정치정책의 선봉일 뿐이라고 자탄을 하기도 했다.¹⁵⁾

2. 3.1운동 이후 종교계의 사회사업

사회의 대두는 사회사업 실시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18년의 쌀소동과 1919년 식민지에서서의 대규모 저항은 민중이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0년대까지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는 대상으로서 담론의 도달지였으나, 포스트 3.1운동의 시대에 사회는 새로운 요구를 생산하는 곳으로 변화하였다.¹⁶⁾

조선에는 전통종교로 불교, 서구로부터 들어온 기독교, 새롭게 등장한 천도교 등의 제 종교들이 있었다. 3.1운동 이후 부상한 민족운동에 대하여 여러 종교 세력은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였다.¹⁷⁾

일본불교는 일찍이 조선총독부와 결합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포교소를 설치하고 기독교의 전파 모델을 수용하여 사회화를 시도하였다.¹⁸⁾ 예를

14) 『매일신보』 1921.5.1. 「종교가의 사회사업장려」; 『동아일보』 1921.5.3. 「총독 지시사항」

15) 『朝鮮社會事業』 1931.4. 「卷頭言」

16) 1920년대 사회, 여론, 민중의 개념과 상상을 다룬 김현주의 글이 참고 된다.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331쪽.

17) 서구문명의 대리자인 기독교는 병원, 학교 등을 통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고 천도교는 농촌을 중심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들어 1910년대 행려병자 구호사업을 시작한 것도 총독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에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을 부령으로 공포하여 행려자를 구제하였는데,¹⁹⁾ 이와 동시에 일본불교가 경영하는 행려병자 구제시설도 늘어났다.²⁰⁾ 다음의 언급은 조선총독부와 일본불교 사회사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통치는 단지 정치의 힘으로는 불가하다. 군대와 경찰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민이 생활 속에서 사회사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동화의 결실을 거두는 것은 곤란하다.²¹⁾

1920년대에 이후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정토종이 운영한 화광교원과 진종(眞宗)의 향사회관이 있었다. 화광교원은 1920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빈민에 대한 숙박구제, 수용과 직업교육, 시료 등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사회사업 기관이었다. 향사회관은 1922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역시 화광교원과 같이 종합적인 사업을 지향하였다. 1920년대의 일본불교가 운영한 이러한 빈민시설들은 빈민에 대한 수용뿐 아니라

18) 일본불교의 사회사업은 기독교 모델을 수용하여 이루어졌다. 1911년 신슈오타니 파가 오타니파자선협회를 조직하여 불교 자선활동의 조직화와 근대화를 도모하였다. 죠도슈(淨土宗)의 죠도슈노동공제회(정토종노동공제회)는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근거한 보은과 공제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승려 와타나베 카이큐(渡邊海旭)의 해외 유학 경험은 일본의 사회사업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관해서는 제점숙, 「식민지 조선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동향 - 신슈오타니파(眞宗大谷派)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 참고.

19) 『관보』 1402호,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 부령 24호, 1917.4.10.

20) 1917년 일본불교연합에 의하여 경성불교자제원 행려병인구호부, 평양불교자제회, 1918년에는 대전불교자제회 행려병인구호소, 인천불교대비원(佛慈悲田院)가 설립되었다.

21) 『朝鮮社會事業』 溪內式惠 1923.6 「社會事業の基調」; 溪內式惠는 대곡파(大谷派) 본원사(本願寺)의 조선포교 감독이다.

노동교회까지 담당하였다. 두 시설은 모두 관유지를 양여 받았으며 하사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²²⁾ 1921년에 조선총독부의 사회와 관계자들과 일본 불교와 기독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결성하였는데,²³⁾ 한국 불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1920년대 영향력이 컸던 불교 단체인 '조선불교단'은 재조일본인과 친일 유력 인사로 구성되었는데,²⁴⁾ 이 단체도 사회사업에 일정하게 참여하였다.²⁵⁾

기독교는 병원을 운영하고 근대적 학교를 설립하면서 근대문명의 전파자로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1910년대까지 조선총독부는 시료(施療) 부분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다.²⁶⁾ 그러나 1920년에는 의료와 교육에서 기독교의 압도적인 위치가 동요하였다. 반기독교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등장하였고 문화정치를 표방한 조선총독부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세력을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전처럼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었다.²⁷⁾ 기독교는 변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음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선교 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유아복지사업과 공중위생보건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였다.²⁸⁾

22) 일본불교 제종파의 사회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윤정옥,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會事業政策』大阪經濟科學大學出版部 4장 참고.

23) 이 단체는 사회사업을 담당하는 관료, 종교가, 사회사업에 관심이 있는 재조일본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1929년에 재단법인인 조선사회사업협회로 변화하였으며, 1923년~1942년까지 잡지 『조선사회사업』을 발간하였다.

24)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史的 변천」, 『대동문화연구』 97, 2017.

25) 『조선불교』 17, 1925.

26) 『朝鮮』 1921.6 「全鮮社會事業及ひ救濟事業施設一覽」

27) 황미숙, 「내한 미국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사회복지사업 연구, 1885~1960」,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장 참고.

28) 사회복음주의는 사회적 관심이 강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종교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참여적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1, 1996 참고.

한국불교는 기독교와 일본불교를 염두에 두면서, 이들과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중화·사회화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사회사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기독교였다. 기독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회광의 언급이 주목된다. 그는 ‘조선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자선사업을 벌이지 않아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²⁹⁾ 이회광뿐 아니라 한국불교계도 포교 수단으로 기독교의 사회사업에 주목하였다. 기독교의 교세 확장은 ‘세계의 부국인 미국 전도회사에서 막대한 금력으로 도처에 병원과 학교를 설치하는 전도 방식’³⁰⁾에 비결이 있다고 보았다. 사회사업을 말할 때 기독교에 대한 언급은 빠지지 않았다. 다음을 보자.

사회사업을 뒷받침하는 선교사와 교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사회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우리는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을 줄로 생각한다.³¹⁾

구미 각국에서는 종교가가 주가 되어 직접 사회사업을 하고 진찰과 구료에 노력하며, 구미 각국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사회사업의 원동력이 되어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서양뿐 아니라 지나 조선, 일본 각지에 있는 사회사업의 발단을 연 것도 이들이다.³²⁾

현황 그러나 동양사상은 정적 소극적이어서 서양과 같이 활발하지 못함으로 유감이지만 지나 조선 일본을 물론하고 불교도가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³³⁾

29) 『동아일보』 1920.6.25. 「불교개종문제 2, 이회광의 주장」

30) 五峰山人, 「현대의 종교상태와 불교」, 『불교』 20호, 1926.2.

31) 五峰山人, 「조선불교의 현안을 해결하라」, 『불교』 7호, 1925.1.

32) 김태흠, 「종교와 사회사업의 연구」(2장 사회사업의 개념), 『불교』 36호, 1927.6.

33) 『불교』 29호, 1926.11, 4쪽.

위의 인용문에서 기독교 사회사업은 한국 불교가 본받거나 따라잡아야 할 대상이었다. 한국불교계는 일본불교보다 기독교와 경쟁·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사업의 시대였던만큼 일본과 조선뿐 아니라 물론 중국불교와 함께 사회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도 했다. 『불교』에는 중국불교의 사회사업에 대한 소개 글도 있었으며, 불교대회에서 세 지역이 불교도사회사업연맹을 조직하여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³⁴⁾

이처럼 내외의 요인들이 한국 불교가 사회사업의 실시를 주장하고 사회사업을 매개로 대중화 사업을 시도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한국불교 사회사업의 동향과 특징

우선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하 불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찰령이 개정되었고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1922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설립되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후원 불교단체를 설립하여 일반인에 대한 교화와 자선사업 죄인에 대한 감화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³⁵⁾ 교무원의 자료를 보면 포교사업으로 교육사업에 주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포교당 안에 야학, 강습소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교육사업을 제외하고 사회사업의 영역에서 한국 불교가 벌인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³⁶⁾

34) 『불교』 18호, 1925.12 ; 『불교』 28호, 1926.10.

35)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389쪽.

36) 불교의 민중화, 대중화를 민족주의 불교도의 전유물로 해석하는 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이회광은 경성부에 빈민구제기관을 열었다. 덕수궁의 선원전 자리를 인수하여 해인사 중앙포교소를 설치한 후 부속기관으로 1923년에 불교제생원이라는 빈민구제기관을 열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1925년에 문을 닫았으나 시내에 진출하여 설립한 빈민구제시설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는 1919년 10월에 총독부 학무국장과 30본산 주지가 회합하여 인심 수습 방안을 논의하며 불교 진흥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고아원, 양로원 등 자선사업을 공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³⁷⁾

불교 사회사업의 동향은 대체로 잡지 『불교』의 소식란에서 얻을 수 있다. 야학회를 개최하거나 유치원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내용 등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들이 있었고, 사회사업에 대한 것도 꾸준히 실렸다. 다음은 『불교』의 소식란에 실린 개별 불교 사찰이나 포교소의 빈민구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재민 구제 활동이 있었다. 당시의 생산수준에서 자연재해는 항상 큰 피해를 주었으나, 1924년 1925년에는 피해가 더욱 컸다. 마침 민족운동의 전성기라는 상황과 맞물려 구제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는데,³⁸⁾ 개별 사찰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24년에서 1925년에 수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결성된 경성기근구제회에 강원도 월정사가 동정금을 보냈다(『불교』 8호, 1925.1). 전남 순천군 장안불교회는 수재의연금을 모아 동아일보에 송금하고 여러 사찰에서 이재민 추도회를 개최하였다(16호, 1925.10). 이외에 개별적 수재민

37) 『동아일보』 1920.6.25. 앞의 기사.

38) 사회주의 운동가와 민족운동가들은 조선총독부를 비판하는 근거로 재해대책을 내세웠으며 이재민 구제를 사상초유의 전국적 사업으로 벌이면서 민족적 일체감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기근구제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규무, 「1920년대 조선기근구제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참고.

구제활동이 있었다. 진주포교당은 수재의연금을 모았고, 함흥군 관북수해민에게 의연금을 송달하였다(52호, 1928.10). 1929년 봉은사 나청호 화상이 이재민을 구제하였다(58호, 1929.5).

빈민에 대한 개별적인 구제 기사도 『불교』에 빼곡이 실려 있다. 백미를 모아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주민에 기근 구제하였으며(11호, 1925.5) 강원도 철원군 심원사를 중심으로 성주암, 석대암, 천일회 지장암 등에서 쌀을 모아서 인근의 빈곤한 빈민에게 배분하였다(15호, 1925.9). 전남 담양군 용흥사에서 빈민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시료사업을 하였으며(20호, 1926.2), 강원도 양양군 신흥사 내원암 비구니 김수영은 인근 부락 빈민에게 2백 원 가량의 쌀을 나눠 주었다(25호, 1926.7). 전북 남원 실상사 신도인 박정연이 빈민을 구제하였고(59호, 1929.5), 진주 통도사 포교당에서 성탄기념 법요식에서 빈민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였다(60호, 1929.6). 각항 포교당은 성도재일을 맞아 걸인 300인에게 음식과 옷을 전달하였다. 경성 간동 불교 포교당은 동안거에 들어온 쌀을 인근 빈민에게 급여하였다(68호, 1930.2).

이외에 경북 의성군 고운사의 불교전문강원에서 학우회를 창립하고 불타의 정신으로 사회사업에 선구자가 되기를 목적으로 결의하였으며(38호, 1927.8), 충남 포교당 아리다라 부인회에서도 자선사업의 실행을 결의하였다(26호, 1926.8).

이 중 눈에 띄는 사업은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차원에서 추진한 유치원 사업이다. 대자(大慈)유치원은 각 본산의 연합사업으로 1928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31본산이 공동경영하기로 했다.³⁹⁾ 1929년에 인가되었으며 경성부 수성동 44번지였고 원장과 보모 3인, 원아가 40명이었다.⁴⁰⁾

39) 재단법인 「조선불교교무원 제 7회 평의원 총회회록」, 『조선불교각종회록 - 한국 근대불교자료전집 1』, 1996, 139쪽.

40) 위의 자료, 172쪽.

1929년에는 보육증서를 수여하였는데 졸업한 원아가 50명이었으며, 재원 중인 원아는 16명이었다.⁴¹⁾ 유치원 교장에는 김태흡이 임명되었다.⁴²⁾ 1929년의 성도기념식 행사에서 유치원생들이 음악과 무용 공연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⁴³⁾

이상을 통해 본 한국 불교의 사회사업에서 조선총독부와 밀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유치원을 제외하면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기반을 가지고 수행되지 않았다. 사회사업에 대한 실천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기독교나 일본불교와 같이 법인이나 일정한 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사업을 조직적으로 경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V. 한국불교의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

1.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사업은 빈곤문제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공의 대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입하는 영역은 바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물질적 지원이었다. 그런데 생활문제나 빈곤문제와 같은 물질적인 문제에 정신적인 구원을 표방하는 불교가 개입하는 것은 일견 모순적인 일이었다. 이는 비단 불교 뿐 아니라 종교 일반이 사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교육과 의료사업을 위주로 한 기독교의 선교사업도 신앙을 도외시 했다고 내부적으로

41) 앞의 자료, 235쪽.

42) 『불교』 59호, 1929.5, 75쪽.

43) 『불교』 56호, 1929.2, 117쪽.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는 불교가 사회문제, 생활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불교』에 수록된 글 중에는 뉘른베르크의 인구론을 거론하며 물질 세계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글이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물질문명의 진도에 따라 우승열패, 생존경쟁은 날로 달로 격심하여 빈부의 차격(差隔)은 심하여 도처에 빵 그것을 위하여 몰두한 현상이므로 신앙 선전은 극히 유난한 것이다. '종교를 신앙케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빵을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사하고 만다'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일반적으로 부르짖음이다.

인구문제, 생존경쟁이 치열한 작금의 현실을 과거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빵 투쟁을 하고 있는 대중에게 교리를 중심으로 한 포교를 해 봐야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또 한 논자는 불교청년에게 당부하는 글에서 “사회와 무슨 원수나 진 것 같이 아조 등을 지고 안져 있어 사회가 종교의 은덕을 입을 수 없으며, 사회에 공헌이 없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 종교는 천대를 받고 배척을 받게 된다.”⁴⁴⁾라면서 불교의 사회참여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사회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로 동아일보 1920년 5월 16일에 수록된 기사를 살펴보자.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대의 변천을 치외야야 개량적 교육이니 통속적 포고니 의무적 자선이나 하는 모든 시설은 몽상에도 경영치 아니하고 의연히 지위를 유지하고 권한만 확장하라 노력하는도다....잘 연구하고 이해하여 고아

44) 『동아일보』 1921.6.2. 「불교청년에게 바라노라1」

원이라든지 포교의 간접 자원으로 통속학교라든지 풍기개량으로 승려 인격 향상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사회 요구대로 시대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⁴⁵⁾

위 인용문에 따르면, 본말사의 주지들은 실질적 지배권을 가졌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감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를 비판하면서 세상이 변화하였음을 인지해야 하며, 사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에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교를 세상에 나오도록 장려하고 사회화하여 민중의 불교”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불교가 세간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한편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의 요구’와 ‘시대의 변천’이라는 말이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류의 언급은 1920년대에 개조론의 바람을 타고 크게 유행한 것이다. 불교의 대중화는 근대 불교로서 한국불교의 방향성이었지만 1920년대 초에 개조의 유행 속에서, 변화의 움직임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민중, 대중은 더 이상 일방적인 계몽, 계도의 대상에 그치지 않았으며, 사회나 민(民)은 앞 시대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1924년에 재단법인 불교중앙교무원에서 발간한 잡지 『불교』 창간호에 실린 글을 통해 사회사업의 대상인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을 살펴보자.

현대에 선전(宣傳)하는 것은 소위 사회문제, 노동문제, 부인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모다 절실한 해결을 내리라고 식자의 두자(頭)를 번민케 하지 만은 그중에도 다수한 오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곳 생활문제이다.⁴⁷⁾

인용문은 한국불교가 사회문제, 노동문제, 부인문제 등에 대응해야 함

45) 『동아일보』 1920.5.16. 「위음인에게 나반사문」

46) 『朝鮮佛敎』 창간호, 1924. 4.

47) 之一, 「생활문제와 불교」, 『불교』 창간호.

을 말하고 있다.⁴⁸⁾ 위의 인용문에서는 생활문제를 현안이라 하였다. ‘생활 문제는 자못 심각해서 서구 문명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난이 조선에도 몰려와 무산계급 뿐 아니라 중간계급에 까지 미쳤고 멀지 않아 상층에 까지 미칠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그간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정치·경제 같은 세간의 문제에 거리를 두어왔으나, 현실 생활과 유리된 신앙과 종교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글의 필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현대를 구제하는 것이 종교가의 임무라 하였다.⁴⁹⁾ 그는 생활문제는 단지 ‘경제상 도덕상 문제뿐 아니라 바로 종교상 문제’라는 주장을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의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였다. 불교의 사회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고아원, 학교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⁵⁰⁾

2. 김태흡의 사회사업론

- 「종교와 사회사업 발달의 연구」에 대하여

시세의 변천과 사회의 요구라는 객관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불교가 사회사업에 뛰어들려면 한가지 더 해명해야 할 것이 필요했다. 사회문제 개입과 그 방법으로서 사회사업을 불교의 교리 위에서 해석하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와 종교의 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교리에 입각하여 답변을 추구한 사람으로 김태흡이 있다.⁵¹⁾

48) 이 문제들은 1920년대 이른바 ‘개조의 시대’가 개막하면서 이슈로 대두된 것이다. 1920년 개벽의 창간호에서도 ‘노동문제, 부인문제, 인종문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世界를 알라』 1920년 6월 『개벽』 창간호.

49) 之一, 앞의 글.

50) 동아일보 1920.5.16. 「위음인에게 나반사문」.

51) 1899년 강화도 강화 출생이며 본명은 김용업(金龍業)이다. 1905년에 강원도 철원의 심원사의 스님 홍월운(洪月雲)에 출가하였다, 1918년 속리산 법주사 강원(講院) 대교과를 졸업하고, 1920년 8월 일본 도요대학 인도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한국 근대의 대표적 학승이자 불교지식인인 김태흡은 『불교』, 『조선불교』 등의 잡지에 상당히 많은 글을 투고하였는데, 불교철학, 한국불교사, 사회사업에 이르기까지 폭이 상당히 넓었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도요(東洋)대학 인도철학과에 입학하여 1925년 가을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였고 1926년 3월 니혼(日本)대학 종교과에서 종교학사 학위를 받았다.⁵²⁾ 1933년 7월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채용되어 사회학개론, 사회사업, 종교학개론을 강의하였다. 그는 “불전의 ‘모던’ 중”이라 소개될 정도로 불교 사회

니혼(日本)대학으로 옮겨 1926년에 졸업하였다. 유학 당시 불교유학생 단체인 재일본조선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1923~24년에는 평의원으로, 1925~26년간은 서무부에서 1927년에는 편집부 소속이었다(『금강저』 21호, 1933.12의 25~26쪽). 1928년 3월 니혼대학 고등사범부 국학과(國漢科)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사료편찬계에서 근무하면서 종교철학역사를 연구하였다. 또한 동 사료 편찬관(鸞尾順敬)의 추천으로 동방불교협회의 연구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지 『東方佛敎』의 조선통으로 활약했다. 여기서 『조선불교』의 교리와 역사를 연구 발표하였는데, 『불교』에 발표한 글 중 「동양불교의 개설」은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것 같다(『불교』 26호, 1926.5). 그는 불교가 중국 불교의 지맥이 아닌 한국 불교만의 특징을 획득하여 독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상당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도와 중국 불교로 양분하여 파악하는 불교 지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 불교가 중국에서 전래하여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전연히 독립하여 조선의 특색을 발휘”하여 “인도에서나 지나에서 있어 보지 못 할만한 위대한 특징이 현저”하며 “동방불교 즉 해동불교로써 성립되었다”라고 하였다(『불교』 17호, 1925. 12). 귀국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종교포교사에 임명되어 1928년 5월부터 포교활동을 했다.

한편 김태흡이 활동한 재일본불교청년회는 조선불교유학생학우회(1920년 4월 11일 ~ 1921년 3월)의 뒤를 이어 1921년 4월 7일 도쿄에서 설립되었으며 1931년 4월까지 활동이 확인된다. ‘불타의 정신을 발휘하여 세계평화를 기도하며 민족의 정로를 계도’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토론회, 강연회, 운동경기와 전조선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기관지로 『금강저』를 발간하였다.

- 52) 논문은 『불교』와 『朝鮮佛敎』에 게재되었는데 조선불교에는 원문이 아닌 요약본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김태흡이 사회사업에 관하여 쓴 글이 조선사회사업협회의 기관지인 『조선사회사업』에 수록되어 있다. 1930년대 사회교화기에 김태흡의 논의와 활동에 대하여는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회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다.⁵³⁾ 여기서는 일본대학 종교과에 제출한 「宗教와 社會事業發達史의 研究」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⁵⁴⁾ 이 논문은 사회사업을 통하여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었다.

논문의 1장에서 종교와 사회사업의 관계를 밝혔으며 2장에서는 사회사업의 의의와 목적, 사회사업의 분류, 사회에 대한 조사방법론 등을 설명하였다. 3장은 사회사업에 대한 사적 고찰로 구성되었다. 고대, 중세, 근대의 사회사업의 발달에 대한 기술과 동양 즉 조선 중국 일본의 사회사업의 연혁을 설명하였다.⁵⁵⁾ 그가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는 종교가 왜 사회문제에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1장이다. 그는 불교의 교리와 사회사업의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론과 유기체적 사회관을 연관시키며 불교 사회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회사업 자체의 의미와 방법론 등을 다룬 2장과 사적 고찰인 3장은 사회사업을 다룬 여타의 글들과 흡사하다.

- 사회와 종교의 관계

김태흡이 논문의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종교는 인간사회의 부산물이며 따라서 사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발생함인가 혹은 종교는 세간 이외 천국이나 극락만을 이상하고 인간사회는 물고섬한 것인가 또는 세간 구제를 하려면 기독교나 석존 같은 완전한 성자라야 가능하고 우리 같은 범인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가?...종교 신앙과 구제사업이 여

53) 『동아일보』 1930.9.23. 「선생평판기, 불전의 '모던' 중 김태흡 강사 불교의 사회화에 노력」

54) 「宗教와 社會事業發達史의 研究」는 불교 25호에서 49호에 걸쳐 실려 있다.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에서 31호까지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https://kabc.dongguk.edu/>).

55) 김태흡, 「종교와 사회사업발달의 연구」, 『불교』 25호, 1926. 8. 5~6쪽.

하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야 나려 왔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다.⁵⁶⁾

그는 석가가 입산수도를 하였으나 염세에서 그치지 않고 구세의 선각자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극단의 염세주의로부터 출발하여 극단의 구제주의로 환원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⁷⁾ 석가의 행동이 염세주의로 보이지만 결국 염세를 극복하고 현실을 구제하였다면서 결국 불교의 갈 길은 현실의 구제에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국가와 사회,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종교는 인생에 대하여 구제를 하고 국가와 사회는 민생에 대하여 보호의 목적을 가졌다'고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⁵⁸⁾ 이어서 그는 종교는 인류 사회의 이상에 먼저 서서 인류사회에 정신을 구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종교는 정신적인 부분만 담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종교의 역할과 구제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것이(구제가-필자) 광의의 종교의 이상이요 또한 협의의 본질이다. 그러면 현금 사회에 횡재(橫在)한 인구문제·빈곤문제·노동문제·부인문제·풍교문제·사상문제 등 현대 사회에 대한 사회문제라 할 만 한 제 난(難)문제의 해결을 할 셋 가트면 이것이야말로 종교의 이상이 아닌가.⁵⁹⁾

인구, 빈곤, 노동, 부인, 풍교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종교적

56) 『불교』 25, 앞의 글, 7쪽.

57) 『불교』 25, 앞의 글, 7~8쪽.

58) 김태흠, 「종교 본질과 사회사업(속)」, 『불교』 28호, 1926.10.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59) 『불교』 28, 앞의 글.

구제라는 논지였다. 그는 종교적 이상은 저 피안의 세계에 또는 천국에 이상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를 이상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어야 하였다.⁶⁰⁾ 즉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현실의 세계를 개혁하는 것이 불교의 임무라는 주장이다.

- 자비사상과 사회연대론의 결합

사회사업은 계급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상인 사회연대론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연대론은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사회복지, 사회정책, 사회사업의 인식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사회사업이 대유행한 1920년대 일본의 사상계에서도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한 사회연대론이 유행하였다.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이 강렬하게 일어났던 1920년대에 사회연대론은 계급 화해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에서의 사회가 갈등과 투쟁의 공간으로 해석되었다면 사회연대론의 사회는 상호연대가 일어나는 통합의 공간이었다.

김태흡의 사회사업론에서 사회에 대한 해석은 사회유기체론에 기반하였다. 여기서 사회는 불교적인 '가공'을 거친 것이었다. 그는 자비심과 보은사상으로부터 출발하는 불교의 세계에서, 각 인생은 사회은(社會恩)을 통해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였다, 사회은을 불교적으로 풀어 말하면 국토은(國土恩), 부모은(父母恩), 사장은(師長恩), 중생은(衆生恩)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은이라 하였다. 김태흡은 '생사해중(生死海中)에서 중생은 부가 되고 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 은혜를 입는다'며 연기설과 자비의 윤리를 설파하면서 여러 가지 중 중생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불교 윤리를 설파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태흡은 이를 유기

60) 김태흡, 『불교』 29호, 1926.11.

체적 사회와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우리가 상식으로서 이를 고찰할 것 같으면 멀고 먼 왕석(往昔)의 전생사는 차치하고 현재 사회에만 재(在)해야 보드래도 자기 일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 일개의 빵 한쪽이라든지 일착(一着)의 착복(着服)이라도 다 타인의 손을 거쳐서 되지 않으면 아니한 것이 없다.⁶¹⁾

사회유기체론에 입각한 해석은 곧바로 사회사업의 이론적인 기반인 사회연대론으로 이어졌다. 그는 사회 일부 기관의 재해는 사회기관 전체의 재해가 되기 때문에 전부가 자진하여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연대책임 하에 있다고 하였다.⁶²⁾ 일부 기관의 재해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방관할 수 없다며 사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유기체적 조직으로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연대책임을 통절하게 느껴야 하며, 사회조직의 일분자인 개인도 서로 연대책임의 관념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⁶³⁾

그는 사회연대론에 기반하여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구분하였다. 사회사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취급하든’ 자선사업과 구제사업과 판이하게 다르다면, 사회사업은 사회의 차원에서 구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있어 ‘사회병’이 발생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미 발병한 경우 치료를 하는 것을 사회사업이라 하였다. 또 그간의 자선사업은 기독교와 불교를 막론하고 공익이나 자선심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전통시대에는 자선의 동기는 오직 복이 올 것이라는 ‘자애적 구보주의(求報主義)’, ‘사후에 극락이나 혹은 천국신국에 출생하기 위해서 또는 복리를 얻으려는 응보의 관념’에 불과

61) 김태흠, 『불교』 29호, 1926.11, 3쪽.

62) 김태흠, 『불교』 32호, 1927.2, 18쪽.

63) 김태흠, 『불교』 32호, 1927.2, 19쪽.

한 것이었다고 비판하였다.⁶⁴⁾ 그는 이에 대체하는 사상으로 사회연대론을 들면서 근대에 와서 비로소 사회봉사 연대책임의 의무적 관념으로 교체되었다고 하였다.⁶⁵⁾

김태흡은 이러한 인식의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사업이 예방혁명의 역할을 할 것이라 하였다. 그는 사회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국(佛國)이나 노국(老國)과 같은 비참한 희생을 지은 대혁명이 연출되지 아니하고도 이상적 신사회가 현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목적이며 사회사업의 근본 목적이다.⁶⁶⁾

김태흡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결방식을 ‘위험사상’이라 칭하면서 비판하였다. 사회연대론은 본질적으로 계급 화합적인 요소를 띠고 있었는데, 김태흡은 사회성원이 상호 간 책임과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의 일부인 약자의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 사회적 강자인 부자가 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자연의 도리이지만, 빈부고하의 각 계급이 일치 협력하여 서로 책임을 가지고 상부상조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⁶⁷⁾

그는 사회사업이란 부자가 빈자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64) 조선사회에서도 자선사업이 사회가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사업에 불과하고 비판하거나 계급 질서를 고착화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돈화, 1924.11 「饑饉과 慈善」, 『開闢』.

65) 김태흡, 『불교』 32호, 1927.2.

66) 김태흡, 『불교』 33호, 1927.3, 12쪽.

67) 김태흡, 『불교』 32호, 1927.2, 19쪽.

사회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강자, 부자, 종교가 독지가만의 임무로 되어 다른 사람들이 빈민문제에 무관심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공동체성과 화합을 강조하는 논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와 계급 갈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빈곤이 사회의 결함으로 나온 것이니만큼 사회적 강자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들도 많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노동시간의 예를 들면서 하루 12시간 노동을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노동하도록 하는 사회연대책임의 관념을 두지 않으면 끝없는 노동 단축으로 이어져 종국에 유의유식하고자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는 일부 계급의 주장만 관철되는 것은 사회적 상호성에서 어긋난다고 하였다.⁶⁸⁾

이상을 통하여 사회사업에 대한 김태흡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는 불교의 교리에 입각하여 사회문제에 불교가 개입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자비사상의 입장에서 사회연대론을 이해하였다. 또한 자선과 사회사업을 구분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하였고 한창 조선사회를 관통했던 사회주의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V. 나가며

본 연구는 그간의 불교 사회사업의 활동을 규명하는데에서 나아가 사회사업의 배경과 중심 논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거시적 맥락에서 사회

68) 김태흡, 『불교』 28호.

사업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제 종교 사회사업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사회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밝히려 하였다.

사회사업은 '사회의 시대'라 불렸던 1920년대에 정책으로 도입되었으며 담론으로 퍼져나갔다. 조선총독부와 제 종교들은 민족운동의 변화된 지형에 적응하는 방편으로 사회사업을 도입하고 각종 사업을 벌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불교계도 사회사업을 표방했으나 그 활동은 종단 차원이 아닌 각 사찰이나 지역 청년회, 지역의 불교사회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일본불교나 기독교계와 같이 조직적이지 않았고 일정한 재정도 없었으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종단 차원의 사업이 부족했음은 여타의 종교집단과 상이점이자 한계였다. 또한 일본불교가 권력 측과 정책적으로 연대한 반면 한국 불교의 사회사업에는 그러한 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사업에 대한 이해에서 한국 불교는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김태흡과 같은 학승은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논하면서 정신을 관장하는 종교가 사회의 문제, 물질적 고통에 개입할 근거를 찾고자 했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사업의 교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는 자비사상과 사회연대론, 유기체적 사회관을 연관 지어 설명하면서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종래의 자선사업이 응보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사회사업은 그를 뛰어넘는 사회의 공동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자선사업과 사회사업을 구분하였다. 사회사업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당대에 떠돌던 수많은 설명보다 명료하였다. 그가 주장한 사회의 공동체성, 연대성은 공공복지의 근간이 되는 인식이며 한국 불교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찰령 하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불교의 사회화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도 사회사업을 통해서 기능해보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불교가 ‘국가’와 유착했으나 별반 성과를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식민지 하 한국불교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변수로 두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보고는 사회문제와 사회사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한국불교 사회사업의 자세한 활동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였다. 자료발굴과 실증적인 논의를 통하여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또한 1930년대 사회사업의 사회교화로의 전환기에 한국 불교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다루지 않았다. 한국불교 사회사업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2019.11.08. 투고 / 2019.12.09.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Abstract]

Trends and Perceptions of Korean Buddhism's Social Work
in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Ye, Ji-so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rends and perceptions of social work in modern Korean Buddhist circles, focusing on the 1920s. The understanding of Buddhist social work was only to discover the activities of each temple and to reveal that Buddhism carried out social wor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to this understanding,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implementation of Buddhist social work and the perception of Buddhist social work.

Korean Buddhism, which promoted socialization and popularization for civilization and reformation, insisted on social work in the 1920s, based on the rise of society and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work of Japanese Empire, Japanese Buddhism, and Christianity. The Buddhist community insisted that religion should intervene in worldly economic difficulties and poverty. Although Christianity and Japanese Buddhism promoted the project at the denomination level, Korean Buddhism is limited to the work of individual templ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for Buddhism to proactively respond to social problems, it was necessary to break through the doctrinal level. Kim Tae-Ab(金泰治) studied at Toyo University(東洋大學), Japan, with a focus on

social work. H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rn society and religion through social work. He provided the basis for Korean Buddhism's social participation, saying that salvation, which is the essence of religion, is not in the world of peon, but in realizing the ideal in reality. In addition, the theory of social solidarity, which is the theoretical basis of social work, was accepted within Buddhism's doctrine.

□ Keyword

Kim Tae-Ab(金泰治), Buddhist social work, social welfare, social solidarity, Buddhist Socialization

[참고문헌]

1. 자료

- 『관보』 『朝鮮』 『朝鮮社會事業』 『동아일보』 『매일신보』 『개벽』
『불교 -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1-17권, 1996.
『조선불교 -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1996.
『금강저 -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52·53권, 1996.
『조선불교각종회이력 - 한국근현대불교자료전집』, 66권, 1996.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2. 단행본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윤정옥,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會事業政策』 大阪經濟科大學出版部, 1996.
Jun Uchida, 『Brokers of Empire ;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Harvard University on East Asian, 2014.

3. 연구논문

- 김상태,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1, 1996.
김순석, 「조선불교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윤기엽,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단의 연원과 史的 변천」, 『대동문화연구』 97, 2017.

- 김광식, 「불교의 근대성과 한용운의 대중불교」, 『한국불교학』 50, 2008.
_____, 「근대 불교사 연구의 성찰 : 회고와 전망」, 『민족문화연구』 45, 2006.
- 김기종, 「김태흡의 대중불교론과 그 전개」, 『한국선학』 26, 2010.
- 김용태, 「한국 근대불교의 대중화 모색과 정치적 세속화」, 『불교연구』 35, 2011.
_____, 「근대 한일불교의 정교분리 문제와 종교성 인식」, 『불교학연구』 29, 2011.
- 예지숙, 「조선총독부 사회사업정책의 전개와 성격(1910~1936)」,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혜숙, 「일제강점기 불교계 사회사업의 개괄」, 『불교평론』 51, 2012.
- 제점숙, 「식민지 조선 일본불교의 사회사업 동향 - 신슈오타니파(眞宗大谷派)의 사회사업을 사례로 -」,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6, 2010.
- 한규무, 「1920년대 조선기근구제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2008.
- 황미숙, 「내한 미국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사회복지사업 연구, 1885~1960」,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